

국내는 좁다 세계로 뛰는 동구전자

AVEX 2009 국제 자판기 전시회 참가, 호평 받아

유럽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AVEX 전시회가 개최된 영국 버밍햄 전시장. 113개의 많은 참가업체 가운데 동양에서 온 한 참가업체가 유독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주인공은 한국의 동구전자. 커피 자판기 종주국인 유럽의 우수한 참가업체들과 당당히 경연을 펼쳐 유럽 자판기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한껏 드높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좁은 국내 시장을 탈피해 세계로 뛰기 시작한 동구전자의 야심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번 AVEX 전시회 참가가 남긴 성과와 과제를 집중 조명해 봤다.

왜 동구전자는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가



“왜 좁은 국내 시장만 보는가? 범세계적으로 보면 시장은 널려 있다. 동구전자의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은 이제 커피자판기 종주국인 유럽 시장까지 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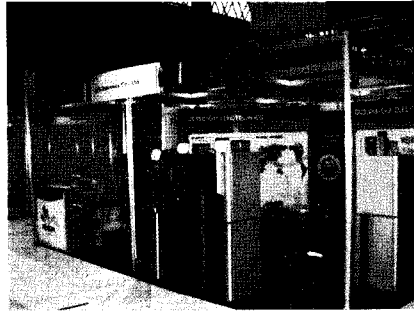
전시회를 준비한 동구전자 송원용 총괄 상무이사의 말이다. 동구전자는 유럽 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 까지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된 AVEX 전시회에 참가했다.

그동안 동구전자의 해외수출은 인스턴트 미니 커피자판기에 머물러 있던 게 사실이었다. 이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물량도 매년 늘고 있다. 이미 2007년도에는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주는 대통령상도 받은바 있다

하지만 원두커피자판기의 수출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장은 있어도 제품이 없어 대응을 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을 무려 5년간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원두커피자판기를 작년 가을 출시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정통 원두커피자판기는 유럽시장을 겨냥해 상품화 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 비로소 원두커피자판기 종주국 유럽시장에 진출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 하에 이번 AVEX 전시회 참가 결정이 이루어 졌다. 6개월에 걸친 치밀한 참가준비, 많은 참가비용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유럽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커피 자판기의 종주국, 유럽을 놀라게 하다

동구전자가 전시한 모델은 5가지 모델이다. 현재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는 인스턴트 모델 DG-8083M, DG-109F3AM과 작년 가을에 출시되어 국내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DSK-118FA(소형 원두커피자판기), DSK-A06FB(원두커피 서비스기)를 전시했다.

이 4가지 모델이 동구전자의 뛰어난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 사양을 자랑하는 메인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전시회 참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비장의 히든카드를 하나 더 준비했다.

유럽시장을 겨냥하고 야심차게 개발한 DSK-B10FB 신제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신제품은 아직 국내 출시가 되지 않은 소형 원두커피자판기 모델로 고급스러운 제품 디자인과 유럽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신제품을 포함한 원두커피자판기 기종들은 맛에 있어서 정통 유럽의 Espresso 방식 원두커피의 깊은 맛과 향이 살아있어 전시장을 방문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제품디자인도 전반적으로 심플하고 고급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 참가의 가시적인 성과도 좋았다. 많은 상담을 통해 일정 물량의 수주도 받고, 대리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현지 재료상, 운영자, 디스트리뷰터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AVEX 2009참가로 동구전자는 커피 종주국 유럽

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점이 큰 수확이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독일 전시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 커피자판기 분야의 최대 강국인 이탈리아 시

장 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더욱더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무장하다

동구전자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미니 커피자판기 분야에서는 경쟁상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렌탈 시장으로 대표되는 미니 커피자판기 시장이 포화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도 한몫을 한다. 이제는 좁은 국내 시장을 떠나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송원용 상무 이사는 “세계 시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큰 시장에서

해외 유수의 메이저 업체와 경쟁해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신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신규 시장 발굴 및 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번 한다면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는 게 동구전자의 저력이다. 더욱더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무장한 동구전자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만들어갈 성공신화를 지켜보는 것은 실로 흥미진진한 일이다.